부산여성불자 25년 이끈 우바이 '大母'



왕선자 명예회장은… 1942년 12월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 문리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혜화여중 · 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창립회장, 불교여성개발원 초대부원장, 부산교육정보원 학생상담사, 부산교도소 불교참회반 위문법회 법사, 부산교육청 학생상담 봉사자회 회장, 조계종 부산경남포교사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조계종 홍법사 홍법대상,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표창, 부산시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2010년 시인으로 등단해 실상문학 작가상, 문화타임 작가상 등을 받았다. 저서는 시집 〈우바이별곡〉, 〈꽃살문〉이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왕선자(77)
부산여성불자회 명예회장

25년 부산지역 자비 · 전법행

1994년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25년 회장하며 봉사 · 전법행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가족,

내 불심의 원동력은 그 가족"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 날마다 공장에 다녀오면 / 물동이 머리에 이고 / 뒷마당에서 무우 뽑아 반찬하고 / 김치전으로 간장 종지 놓고 /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 세상 으뜸으로 여기시던 어머니."

따뜻한 밥을 짓고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중생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았다. 위의 시는 시인이자 부산여성불자회를 25년 동안 이끌어 온 왕선자 명예회장의 시다. 시에서 보이듯 왕 명예회장은 '어머니의 마음' 으로 세상을 본다.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자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늘 '어머니의 마음' 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 번의 실수로 멍에를 지게 된 재소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교화하고, 힘겨운 청소년들에겐 든든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등 그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말한다. 보살의 마음을 닮은 왕 명예회장의 이야기다.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한 퇴진

왕 명예회장은 4월 9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열린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회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이 됐다. 25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왕 명예회장의 모습에 회원들은 모두 뜨거운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왕 명예회장은 회장직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회장직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고, 이 · 취임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회원들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왕 회장의 지도력에 여전히 믿음이 컸기에 어느 누구도 왕 회장의 자리를 대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왕 명예회장 역시 회원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왕 명예회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오래했어요"

갑작스런 이 · 취임의 이유를 묻자 왕 회장은 짧게 답했다. 그리고 "명예회장으로서 변함없이 후원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덧붙였다. 왕 명예회장의 쉼 없는 '25년' 의 불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병마로 얻은 불자의 삶

왕 명예회장은 평범한 불자였다. 자녀를 기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어느 날 그에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 병마는 왕 회장을 괴롭혔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힘이 없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많은 병원을 다녀봤지만 병명과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스트레스 혹은 신경쇠약이란 말만 돌아올 뿐 나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왕 명예회장은 마침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다. 더 이상 수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포기 하듯 학교를 떠났다. 10년 동안 지켜왔던 교단을 허망하게 내려와야 했다. 왕 명예회장은 아픔 속에 살다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절망이었다.

"절에 가서 기도해보자"

어느 날, 왕 명예회장은 친정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산 선암사를 찾았다. 여고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긴 했지만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고 매달린 적은 없었다. 처음이었다. 범어사 말사인 선암사는 백양산 중턱에 자리 잡아 오르는 길이 험했고, 그 때 당시는 차가 다니기에도 불편했다.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왕 회장은 숲길에 핀 아카시아 잎을 따서 하나씩 떼어가며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했다. 걸음마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오른 선암사에서 왕 회장은 편안함을 느꼈다. 포근한 안식처에 안긴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절망에 휩싸이게 한 병마의 걱정도 불안도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관음기도는 빼놓지 않아요. 아팠던 몸이 거짓말처럼 낫기 시작했는데 부처님께 너무 감사했고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암사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쯤 지나면서부터 병명조차 알 수 없었던 왕 명예회장의 병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3년 동안의 기도가 더 이어지면서 왕 명예회장은 병마에서 벗어난다.

탄생 부산여성불자회

왕 회장은 선암사를 매일 오르며 절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선암사에 갈 때마다 보았던 10살 쯤 된 남자아이였다.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던 남자아이는 어딘가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학교를 다녀오면 가방을 던지듯 벗어 놓고 이리 저리 다니기에 바빴다.

선암사서 그 아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왕 명예회장은 그 아이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다음날 선암사를 찾은 왕 명예회장은 학교에서 돌아온 남자아이를 붙들었다.

"공부도 해야지. 책 펴고 가방 바로 놓고…"

왕 명예회장은 나가려는 아이를 붙잡았다. 씻기고 먹이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절에 맡겨진 아이였다. 왕 명예회장은 그 아이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지 스님이 절을 옮기면서 아이도 주지 스님을 따라 가야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의 수행 일과

B5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2019 괘불전

B6
학술 · 문화재
혜암 스님 탄신100주년 학술세미나